

교차로

승가

월간 '해인'지 2백호 발행

보광 해인사주지는 10월호로 월간 '해인'지 2백호를 발행, 특집호를 냈다.

회법법제사 심준복 계금

도업 부산 회법법제사 주지(동국대 불교문화대학장)는 17일 삼존불계금 및 일주문 단청불사회향법회를 봉행한다. 또 스님은 이날 '회법경 사상연구'(민족사 펴) 출판기념회도 갖는다.

광동중 교사 총축

일면 광동학원 이사장(불암사 주지)은 2억원의 정부지원을 받아 광동중학교 교사를 증축한다. 또 도농교향학습으로 서울 중계중학교와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2박3일간 교환수업을 실시한다.

노인의 날 기념 인솔행사

각현 연꽃마을 이사장은 2일 제2회 노인의 날을 기념해 추석맞이 인솔이행사를 개최, 생활보호대상 노인 40명에게 후원품을 전달했다.

불국사 강원 동문회장에

종후 노적사 주지는 9월25일 불국사강원동문회 창립총회에서 회장에 추대됐다. 불국사강원동문회는 각 기수별로 1인씩의 상임위원과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동문회의 운영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웃돕기 쌀·성금 전달

원육 호암사 주지는 1일 서울 금천구청에 9월22일 불우이웃 돕기 바자회에서 모은 쌀 207마와 실직가정 급식지원비 1백70만원(207가구에 8만5천원씩)을 전달했다.

국어운동 공로 표창

동동 우리절 주지는 552돌 한글날 기념 국어운동 공로표창자로 선정, 9일 한글회관에서 표창장을 받았다. 우리말로 절이름을 지어 우리말과 글을 사랑하고 지켜 쓴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수해복구 부대등에 감사패

선암 강화 적석사 주지는 9월 26일 대웅전에서 수해응급복구 감사패 전달식을 갖고, 강화군청 건설과 황인익 보상계장과 육군 제 3835부대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교도소·군에 떡·음료 제공

목조 천안시불교사암연합회장은 2일 추석맞이 맞아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경비교도대 제3탄약창 군법당 등을 방문, 떡과 음료수 등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절안에서 더 많은 사람 만나”

“두문불출하며 하루도 거르지 않은 실시한 10년기도가 나를 강하게 만들었고 신홍사 종합불사도 원만회향하게 했습니다.”

11일 '10년 기도회향 및 종합불사 낙성법회'를 봉행한 경기도 화성 신홍사 주지 성일스님. 스님은 22년 전 맨손으로 경기도 화성 초라한 초가 한채와 허물어져가는 법당 뿐이었던 산골에 들어와 기도로 대규모 사찰을 일으켰다. 언제부턴가 스님은 '여적스님' '포교의 대모'로 불리는 일이 많아졌다. 하루를 기도로 보내다시피 하면서도 신홍사 종합불사, 불사발간, 각종 수련법회 등을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스님의 두문불출 10년기도는 88년 4월 24일 하루 8시간 동안 진행되는 1천일기도로 시작했다. 이후 2천일기도, 3천일기도로 이어져 10년기도를 회향하게 됐다.

“지난 10년 동안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첫번째 1천일기도 때는 수련원과 법당불사가 이루어졌고, 2천일기도때는 6백 40명의 대규모 교육관이 빚힌곳 없이 회향했습니다. 3천일기도에는 어린이 법당(관음전), 사리탑, 수선당 등이 건립되었습니다.”

스님은 모든 불사는 부처님의 가피력에 의한 것이라 믿는다. 10여년 동안 절박을 단 한발자국도 나가지 않았는데 불자들이 찾아와 시주를 해 모든 불사가 원만성취됐기 때문이다.

“주지가 10년 동안 일주문밖을 나서지 않고 이같은 불사를 했다면 믿었어야. 그

러나 저는 두문불출하면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났지요. 전국 각지에서 온 어린이 청소년 신도들에게 법문을 하고 기도도 함께 하니 나가서 법문하는 것보다 성과가 더 큼니다.”

성일스님이 교계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청소년 포교에 남다른 원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스님이 청소년포교에 뛰어들어온 것은 수원교도소에 수감중인 한 재소자가 보낸 “좀더 일찍 부처님 법을 만났더라면 살인죄를 짓지 않았을텐데...”라는 내용의 참회편지를 받고부터이다. 이후 스님은 곧바로 어린이 법회를 시작했

종합불사 낙성 부처님 가피 어린이 청소년 포교 헌신

고 청소년 수련교육을 시작했다. 스님은 “기도나 건축불사보다는 수만명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심신을 수련하고 불법을 배워갔다는 점이 더욱 뿌듯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수련원을 찾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마음도 각별하다. 이들을 위해 <어린이불교학교 지침서> <법을 설하여 주움소서>, 2권을 발간했다. 또 <신도포교 지침서>상하권에 이어 금년내로 <청소년 포교 지침서>와 연극및 혼극 대본도 출간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6면>

“어린이 청소년들이 싫증내지 않고 부처님의 교리를 재미있게 습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연극이나 혼극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라며 대본 출간의 의의를 설명했다.

내성에서도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매진하겠다는 스님은 “이제는 건축불사보다는 신홍사를 불교의 미래를 일구는 교육도장으로 조성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며 수영장 및 청소년 학습장 조성 등의 계획도 밝혔다.

김종근 기자(gamja@buddhopia.com)



국민회의 연등회 창립 2주년 법회

국민회의 연등회(회장 박상규)는 창립 2주년을 맞아 9월26일 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불교발원도 국태민안을 서원했다.

박상규회장은 “연등회가 창립 2주년을 맞이까지 관심과 격려를 해준 모든 사부대중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더욱 정진하여 불교권익증대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회에는 인곡 태고종 총무원장, 운대 천태종 총무원장, 성초 진각종 총무원장, 총지종 총무원장, 청화 조계종 총회 부의장, 해광 법주사 주지, 지선 백양사 주지, 지하 중 앙승가대 총장, 진관 조계종 총회의원스님과 조세형 국민회의 총재대행, 김용채 자민련 부총재, 이길봉 문화관광부 총무실장, 정덕중 태고종 신도회 회장 등 3백여명이 참가했다.

동국대 법대 21일 후원의 밤 행사



이연택씨



이연경교수

동국대 법과대학(학장 연기영·분지 논설위원)은 9월24일 서울 엠버서더호텔에서 동문들과 재학생을 후원하기 위한 ‘동국대 법대 후원회’를 발족, 21일 오후 7시에는 동국대 90주년기념관 그릴에서 ‘동국대 법과대학 발전기금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 행사를 마련했다.

“동국대 법대 후원회”는 명문 법대로서의 예전의 명성을 되찾고 사법시장을 비웃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졸업·재학생들을 후원하기 위해 법대 동창회(회장 오진모·청주대 석좌교수)를 중심으로 결성됐으며, 초대회장으로 이연택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61·前 총무처장관)이 선출됐다.

이연택 회장은 “법대후원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과대학발전기금을 조성해 ‘고시장학’ 등 장학금 수여와 연구활동 지원, 법대 시설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법과대 연기영 학장은 “법대 발전을 위한 후원회가 결성돼 마음이 든든하다”며 “50여년의 역사와 전통에 걸맞는 명문사학의 법과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후원의 밤에 동문들과 교계 안팎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02)260-3224

김정은 기자(jekim@buddhopia.com)

감로심장회 심장병 조선티어린이 2명 수술



감로심장회(회장 보운, 전전선원 주지)는 최근 심장병을 앓고 있는 중국포교 어린이 2명을 초청, 무료수술을 실시했다. 중국 길림성에 거주하는 윤동범(11세)군과 허금실(14세)양은 9월 24일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 진주 경상대병원에 입원해 정밀검사를 받은 뒤 9월 29, 30일 마산의료원과 경상대병원에서 각각 심장병 수술을 받았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opia.com)

월주스님께 드리는 글

아름다운 수행자의 뒷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월주스님!

올여름 많은 이들을 울렸던 그 저곳저곳한 장마바가 지나고, 어느덧 가을이 한창입니다. 농부는 느린 들녘 이삭을 거두고, 스님네들은 여름 한철 정진했던 공부를 갈무리하는 이 가을은 모두에게 수확과 풍요의 계절입니다. 94년 이곳 조계사를 떠났던 파사현정의 사자후가 지나온 4년사리로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스님 4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스님 역시 중단을 위해 발로 뛰어난 지난 4년의 소회로 이 가을 가슴이 벅차시겠지요.

그러나 월주스님! 한가롭게 가을 풍경을 즐기만큼 상황이 여유롭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는 사회대로 중단은 중단대로 혼란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원인은 한가지입니다. 계승발전 시켜야할 궁지와 전통은 부족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지혜의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통'과 '미래' 양자에 대한 무지가 섞여있는 셈이기에 스님 분명히 전통과 미래는 둘이 아닙니다. 전통에 버거워한 이가 미래를 치밀하게 준비하기 어렵고, 내일에 대한 해안 없는 이가 전통을 울곧게 세우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스님 4년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스님, 작금의 조계중단의 미래를 위해 세워야할 전통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지방분권화도 필요하고 제도개혁도 해야합니다. 대사회역할을 높이고 중무행정을 현대화 하는것도 시급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중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말할 나위없이 '버리고 비용으로 얻는 즐거움'을 선택과정에서 전통으로 세우고 나아가 이를 중단전통으로, 사회의 도덕률로 뿌리 내리는 일일 것입니다. 21세기 수행자의 상의 정립도, 도박사건으로 실추된 출가수행자의 위도 이것으로 다시 세우수 있습니다. 중단의 진정한 개혁이 오고, 오락악세를 막히는 불교로 비로소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부터 우리 스님네들은 '중버승 담배술보다 못하다'고 하여 출가수행자가 소임이나 직위에 연연해 탐착에 젖지 말아야 함을 경책해 왔습니다. 한철 소임을 살고나서 결망애고 훌쩍 떠나는 수행자의 뒷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월주스님의 아름다운 뒷모습이 보고 싶습니다.

3선반대를 위한 불교도 연대회의를 발족시켰더니 주변에서 많은 기대를 보았고, 혹은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우려하는 이들은 "불교도 연대회의가 특정인을 반대하기 위한 정치적인 모임 아니냐"는 것입니다. 물론 3선 반대 움직임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수 있음을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

요한 것이 있다는 점을, 정치적으로 해석해 묻어두서는 안될 '절대정명의 과제'가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줄 것을 이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버림과 비움으로 얻는 즐거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은 바로 '권력에 탐착하지 않는 새 승가상, 종단의 이른'을 정립하는 일일 것입니다. 3선이 법리적으로 합당한가, 아닌가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스님 주변의 극소수 권승들은 이같은 중도들의 일방을 외면한채 '정권 재창출'이니 하면서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려 혈안이 돼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94년 봄 들불처럼 일었던 사부대중의 힘은 그 시술려린 서원장을 권좌에서 끌어 내렸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졌던 당시의 투쟁에 사부대중이 일심으로 동참하고 결국 개혁의의를 출범시켰을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3선이 중단에 필요한가 아닌가 하는 논리적 판단 하에서였을까요. 아니면 출가수행자의 본분을 망각한 탐욕에 대한 사부대중의 준엄한 심판이었을까요. 일부에서 지금의 상황을 두고 말하는 중도의 법리적 해석 운운하는 작태가 얼마나 지엄할만한 것인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월주 스님! 3선연임을 두고 소모적인 논쟁을, 다시한번 중단의 분열된 모습을 보여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득이하게 월주스님의 3선을 반대하는 이유는 스님의 지난4년 공과를 무조건 덮자는 뜻이 아닙니다. 개인적 지지 여부에 앞서 지금 이순간 전통을 세우지 않으면 중단이 또다시 혼란속에 젖어들고, 자칫 4년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조차 많은 고민이 있었고 쉽게 결론을 내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스님은 아직까지 3선에 출마한다는 뜻을 표명하지 않고 계십니다. 고민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스님 주변의 일부 권승들의 총동결에도 불구하고 스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나마 지회에게 위안이 되는 것이며, 또 저희가 그동안 많은 논쟁을 벌이면서도 쉽게 아니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쩔수 없이 나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중단의 천년지대계를 위하여 엄중히 경고합니다. 월주스님을 앞장 세워 사욕을 챙기려는 권승들은 전 중도들 앞에 석고대리 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중단의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해야할 일이, 천년을 버틸 아름다려 기등을 세우는 일입니다. 아니면 서가래에 화려한 물감을 칠하는 일입니다."

총무원장 3선출마 반대를 위한 불교도 연대회의(02-725-3766) 불교 14개 단체

공동의장 : 청화(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의장), 해충(동국대학교 석림동문회 회장)

지원(전국불교운동연합 의장), 종광(조계종을 염려하는 중회의원 모임), 효산(선원 수좌), 진관(불교인권위원회 대표), 효중(중앙승가대학교 동문회장)